

‘코로나 빚’ 못 갚는 소상공인...연체액 ‘눈덩이’

광주·전남 소상공인진흥기금 3년간 60억씩 연체...8월 말 283억 부실채권 올해 100억 돌파 전년 대비 37% 증가...선제 대응 필요

정부가 최근 5번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 소상공인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 연체액이 해마다 60억원씩 쌓이면서 연말에는 누적 연체 규모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지역 소진기금 부실채권은 100억원을 돌파했는데,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 직접대출 가운데 90일 이상 누적 연체액은 광주·전남 283억원으로, 지난 연말(216억원)보다 31.0%(67억원) 증가했다.

광주 소상공인들의 누적 연체액은 지난 연말보다 34.4%(33억원) 늘어난 168억원이었고, 전남은 42.0%(34억원) 증가한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소진기금 연체 규모는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60억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주 34억원·전남 22억원 등 56억원이었던 소진기금 연체액은 ▲2019년 97억원(광

주 61억원·전남 36억원) ▲2020년 160억원(광주 103억원·전남 57억원) ▲2021년 216억원(광주 135억원·전남 81억원) ▲올해 8월 283억원(광주 168억원·전남 11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부터 연체 규모가 2.9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체 규모가 불어날수록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채권’ 규모는 올해 100억원을 넘겼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 소진기금 당해 부실채권은 112억원으로, 지난해(82억원)보다 36.6%(30억원) 증가했다.

광주 부실채권은 4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7%(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37억원에서 64억원으로 8개월 새 73.0%(27억원)나 뛰었다.

지역 소진기금 부실채권(당해 연도) 역시 2018년 광주 30억원·전남 16억원 등 46억원→2019년 광주 33억원·전남 14억원 등 47억원→2020년 광

주 47억원·전남 23억원 등 70억원→2021년 82억원→올해 8월 말 11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소진기금 직접대출 신규 금액은 지난 2019년 2248억원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823억원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신규 대출액은 2332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2635억원(광주 1141억원·전남 1494억원)을 새로 대출받으며 연말 대비 13.0%(303억원 ↑)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 연말 3조761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조1074억원으로, 17.4%(-6537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해 말 종료하기로 했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5번째 이어지는 연장 조치다. 지난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기준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잠깐의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물가, 경기 불황과 같은 복합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범죄피해자 돕기 성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에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소방·방재 AI 학습용 데이터·응용 서비스 공개

광주지역 IT기업 비온시이노베이터 ‘AI TECH+2022’ 참가

광주지역 IT기업(주비온시이노베이터(대표 김용수)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시회 ‘AI TECH+2022’에 참가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응용서비스를 홍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비온시이노베이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지원사업



(1차) 소방 3D 객체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방 3D 객체 데이터는 소방대원 행동모션 3D 객체 모델링 데이터, 소방시설·장비 3D 스캐닝 데이터, 화재영상 3D 객체 데이터로 구성돼 있다.

소방대원 행동모션 3D 객체 모델링 데이터는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분야에 특화된 3D 행동 데이터로, 다양한 현장에 대응해 실감훈련이 가능한 ‘AI 소방관’ 개발이 가능하다.

소방시설·장비 3D 스캐닝 데이터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공활용서비스 목적으로 소방방재 및 소방산업 관련 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응용서비스는 VR 기반의 화재 진화과 요구 조자 구조 훈련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및 피드백 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상훈련과 교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

이밖에 비온시이노베이터는 행사 기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해커톤 대회’도 동시 운영, ‘소방 3D 객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알고리즘 개발 및 응용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16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용수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소방 3D 객체 데이터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소방안전 및 방재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표준 데이터다”며 “이를 고품질로 구축해 소방안전과 방재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물가 상승 어찌나

4인 가구 월 평균 7000원 오를 듯...9월 물가 6%대 주목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평균 비용이 7000원 넘게 오를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한꺼번에 오르면서 지난 8월까지 5%대에 머물렀던 광주·전남 물가상승률이 다시 6%로 오를지 주목된다.

3일 한국전력과 (주)해양에너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4인 가구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을 전월보다 평균적으로 7670원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액은 한 달 평균 전기 307kWh(킬로와트시)와 도시가스 2000MJ(메가줄)을 쓰는 4인 가구를 전제로 산출했다.

지난달까지 전기·가스요금으로 7만8120원을 내던 4인 가구는 이달부터 9.8%(7670원)가 오른 8만5790원을 내야 한다.

4인 가구 전기요금은 지난달 기준 4만4140원에서 4만6410원으로 5.1%(227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15.9%(5400원) 오른 셈이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30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안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적용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

분(1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1kWh당 2.5원)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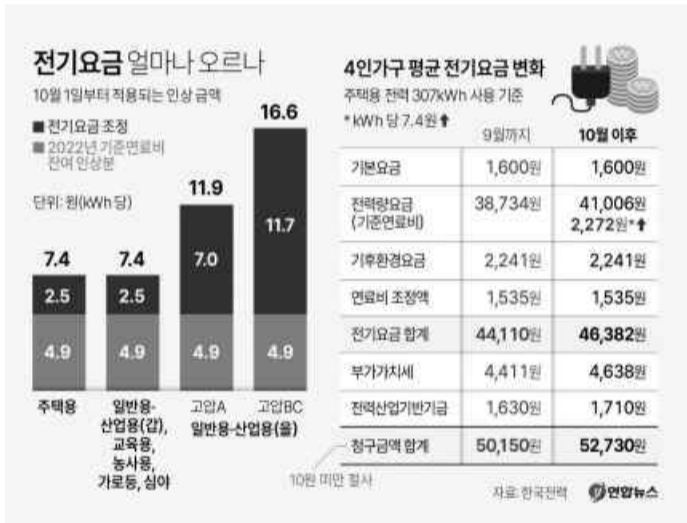
이와 함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이달부터 MJ당 2.7원 인상된다. 광주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기존 MJ당 16.8원(취사)·18.0원(난방)에서 이달부터 19.5원·20.7원으로, 각각 2.7원 오르게 된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과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용 전기·가스요금도 함께 오른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최대 11.7원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하면서 철강·자동차 등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잡아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더하면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11.9~16.6원까지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식당과 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영업1종(일반용) 요금은 15.8~16.0% 오른다.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2종 인상률은 16.6%~16.9%이다.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 소비재 물가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올라 물가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7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10종의 조정(인상)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미루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에 오른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하는 ‘도매요금’으로, 광주지역 소매요금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동결해왔다.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 올랐는데, 이 같은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